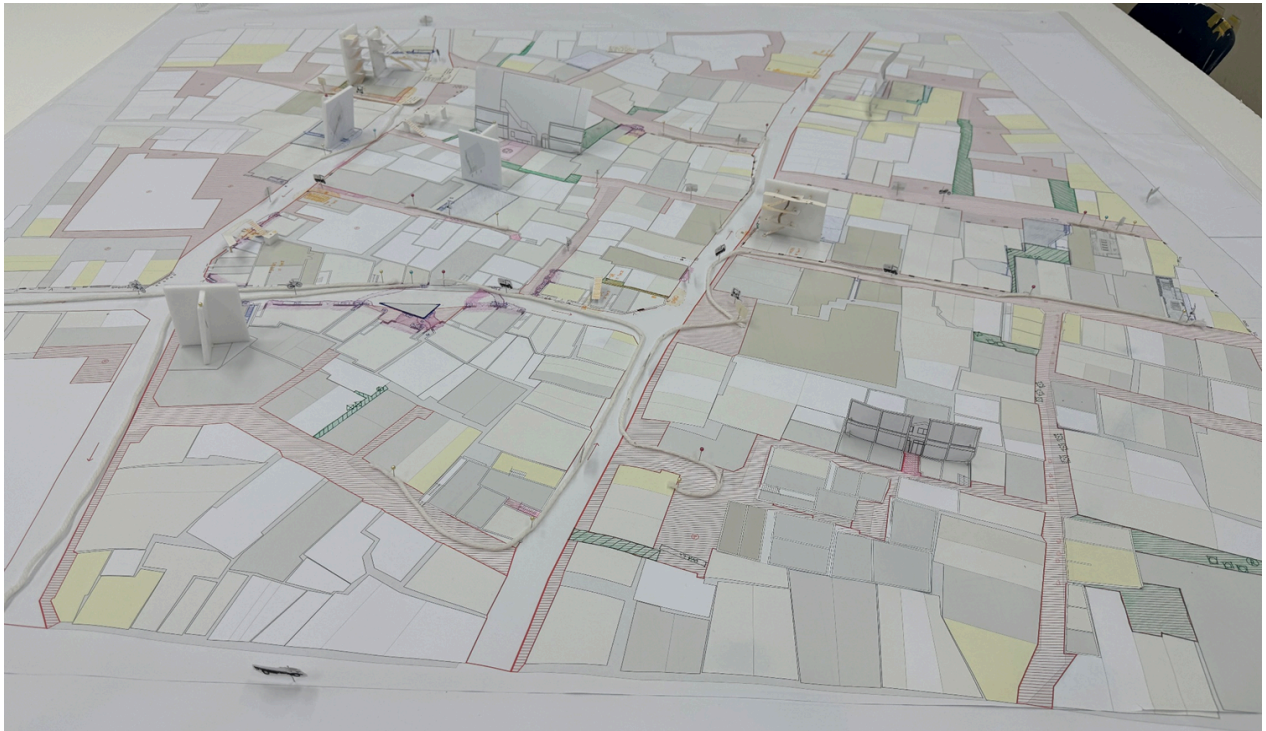


YONSEI STUDIO-X (Architectural Design Studio 4&6)

Unit 2 by Jae Won Yi

Compressed City, Euljiro



Cooperative drawing of current transformation in Euljiro_Studio X-UNIT2 2024-2학기

Unit Master:

이재원 **Jae Won Yi** // 영국 런던 AA School 을 졸업하고, 비물리적인 도시 구조가 현대 도시 문화의 핵심이고, 이와 연관된 물리적 도시 구조 및 건축 공간 연구가 더 나은 도시적, 건축적 삶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 이후 도시건축정류소건축사사무소(Urban Architecture Station, Architects)와리얼씨티랩(Real City Lab)을 설립하여 다양한 성격과 스케일의 프로젝트와 연구를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중이다. 주요 작업은 이태원 우사단로를 대상으로 뉴타운 개발의 대안으로써의 도시전략을 수립한 '크로싱 우사단로' 와 가리봉동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문지방도시/변이건축', 엄사리 주택 '일상휴가'가 있다.

Unit Agenda:

압축 도시: 을지로의 주체적 삶과 대응하는 도시주의와 건축 (**Compressed City: Designing Urbanism and Architecture in Dialogue with Subjective Life**)

- 어떻게 을지로를 어떻게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을까? (How do we analysis and criticize on Euljiro?)
- 압축도시는 무엇이고, 을지로는 압축 도시일까? (what is 'Compressed City' and is Euljiro this?)
- 을지로의 건축과 도시주의는 주체적 삶과 어떻게 대응하면서 작동하는가? (How has Euljiro's architecture and urbanism operated from a subjective point of view?)
- 주체적 삶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을지로의 어디 영역을 설계할 수 있을까? (Where is the site in Euljiro as subjective points of view?)
- 어떻게 도시형태와 구조를 건축 형태, 변이, 공간, 시스템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 (How do we perceive urban form and system as architecture form, variation, space, and system?)

을지로를 압축 도시로 분석, 비평하고 여기에 주체적 삶과 상호 대응하는 도시주의와 건축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2025년 2학기 Unit 2는 확실적인 재개발이 아닌 주체적 삶과 대응하는 도시주의, 도시전략, 건축을 을지로에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 2025년 1학기에 탐구한 주체적 삶을 위한 건축(subjective architecture)을 확장하고, 2023,2024년 2학기의 문지방 도시(Threshold city), 주체적 삶의 위한 도시주의(subjective urbanism)를 참고로 하여 시작의 폭과 깊이를 더한다. 유닛의 목표는 다음 2개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 된다. 첫번째로는 주체적인 삶과 상호 작동하는 을지로의 도시 형태, 시스템, 사회적 구조, 건축 형태, 변이 공간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정의 내린다. 그 후 블록 내부 또는 블록 간에 이질적인 성격을 드러내거나, 을지로만의 사회적, 공간적 특성을 창발(emergece)하는 경계(perimeter)와 영역(area)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정의 내린다. 두번째는 디자인 과정으로, 앞에서 발견한 도시와 건축 구조, 형태, 공간, 요소를 이용하여 '경계'와 '영역'을 변형하는 직접 행동하기(Direct Action) 제안을 예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발전시켜 최종적인 도시전략과 건축을 제안한다.

How do we design 'urbanism' and 'architecture' to engage with- and respond to- subjective life by criticizing Euljiro as a 'Compressed City'? The aim of Unit 2 in this semester is to design urbanism, urban strategy, and architecture, dialoguing with subjective life beyond the standardized redevelopment. This builds on the explorations of *subjective architecture* undertaken in Spring 2024 and Spring 2025, while drawing from the concepts of *Threshold City* (Fall 2023) and *Subjective Urbanism*(Fall 2024) to expand both the scope and depth of inquiry. The aim is specified by two main processes: 1. **Urban investigation and diagnosis:** investigate, diagnose, and define urban form, system, social structure, architectural form, variation interacting with subjective life. delineate and interpret perimeters and area-whether within or between blocks-that reveal

heterogeneous conditions or generate emergent soci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unique to Euljiro. 2. **Design Process and Proposals:** Develop preliminary *direct action* proposals that transform the identified “perimeters” and “areas” by engaging with their underlying urban and architectural structures, forms, spaces, and elements. Advance these into coherent urban strategies and architectural proposals, articulating a critical and situated vision for Euljiro’s future. Through these steps, Unit 2 aims to produce design propositions that not only reflect and elevate the layered complexity of Euljiro as a compressed city but also actively shape conditions for subjective, self-determined urban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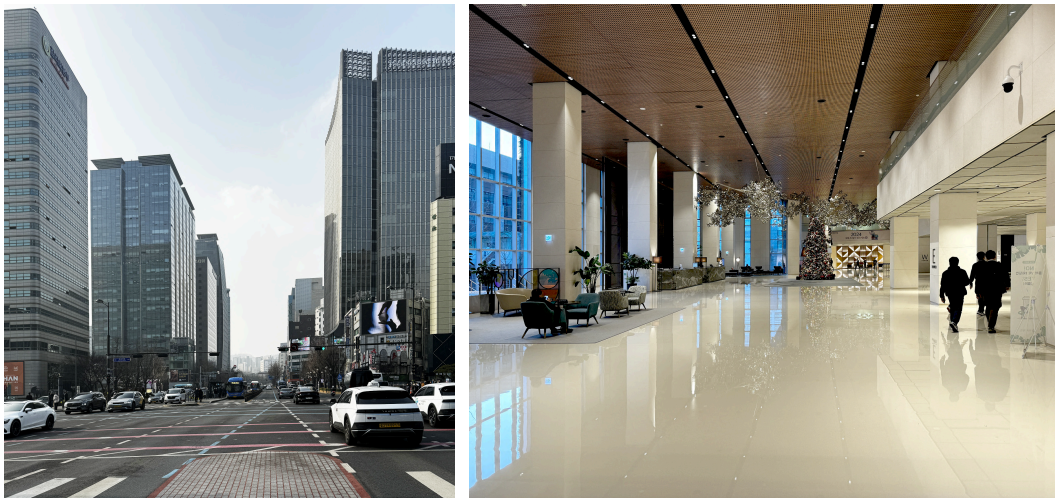
Research and Proposal Area

들어가는 말 (Introduction)

// 건축가 리켄 아마모토는 2024년 6월 10일 연세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과거와 단절하고 보편적 이상향을 제안한 모던 주택 시스템인 1가족 1주거 양식과 LDK 시스템이 현재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저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였다. 그리고, 건축이 문제를 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또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 하였다. 이 문제 인식은 작년부터 이어져온 UNIT 2의 현재의 삶과 건축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현재의 삶은 바쁘기만 하고, 균질하고, 순간적이고, 투명하다.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 사회를 개인이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경쟁하게 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투명사회(The Transparency Society)라고 한다. 이 사회에서는 개인은 앞의 상태에 익숙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멈추고, 리추얼을 따르고, 감추는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이런 상태가 노멀이던 뉴노멀 사회에서는 외로움, 불안, 강박이 따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쾌락의 행위와 공간도 창조를 불러오는 유희적 놀이와 관계가 먼 일탈의 행위뿐이다.

UNIT 2는 이런 현재의 삶을 만든 조건 중 '건축(architecture)'과 '도시계획(urban planning)'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부터 근대화와 성장을 목표로 구축된 서울의 건조 환경은 LDK 시스템에 필적할 만한 재건축, 재개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는 균질하고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산출이 쉬운 도시, 건축, 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이 모델은 금융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아주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 공간 안의 사용자는 자발적인 창조, 자기만의 공간 구축, 멈추고 교류할 만한 여유가 없다. 뉴노멀 상태의 우리를 주체적으로 창조하고, 즐길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축과 도시는 어떻게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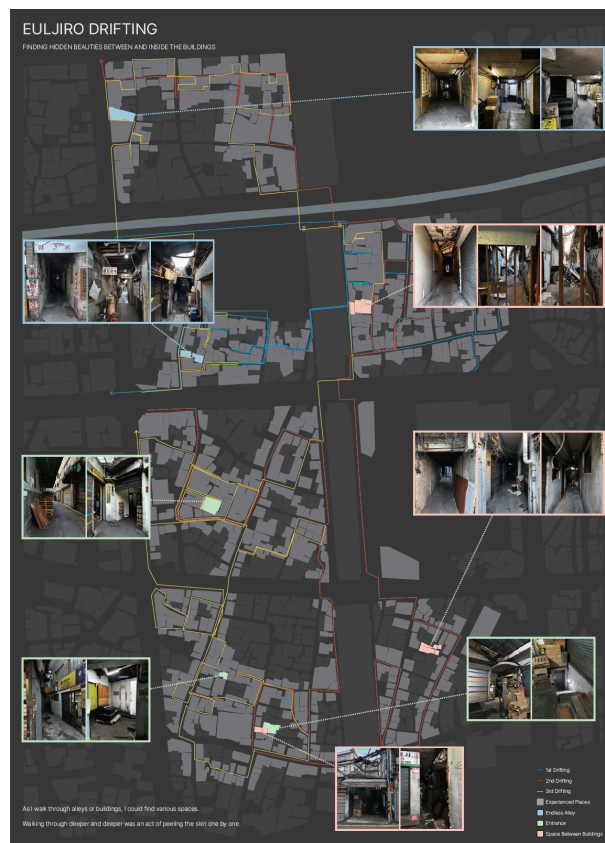


종로의 스트리트 뷰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커튼월 건물과 내부 인테리어 모습

을지로 (Euljiro)

// 을지로는 투명, 불투명한 상태가 병치하는 장소이다. 도시 공간 틈과 중첩한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제조업 작업자들의 작업 공간과 높고 투명한 오피스 건물이 서로 마주보는 장소이다. 2개의 공간이 병치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와 1960년 후반의 근대화를 지나 온 결과 중세, 2번의 근대, 현대의 시간이 적층되고 변형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1, 2층 제조업 공간 너머 위층으로 올라가면, 을지로를 향유하는 예술가들의 삶에 대응하여 변형한 건축 공간이 드러난다. 오후부터 불이 켜지는 이 공간안에 들어가면 외부 도시 공간과는 다른 내밀함과 그곳만의 독특한 공간의 질과 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즉, 같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드는 도시/건축/공간 형태와 시간, 그것들이 드러내는 상실과 새로움이라는 감정이 이질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을지로이다. 이와 같이 이 곳은 스스로 변화하는 생명력을 가진 다양하고 유연한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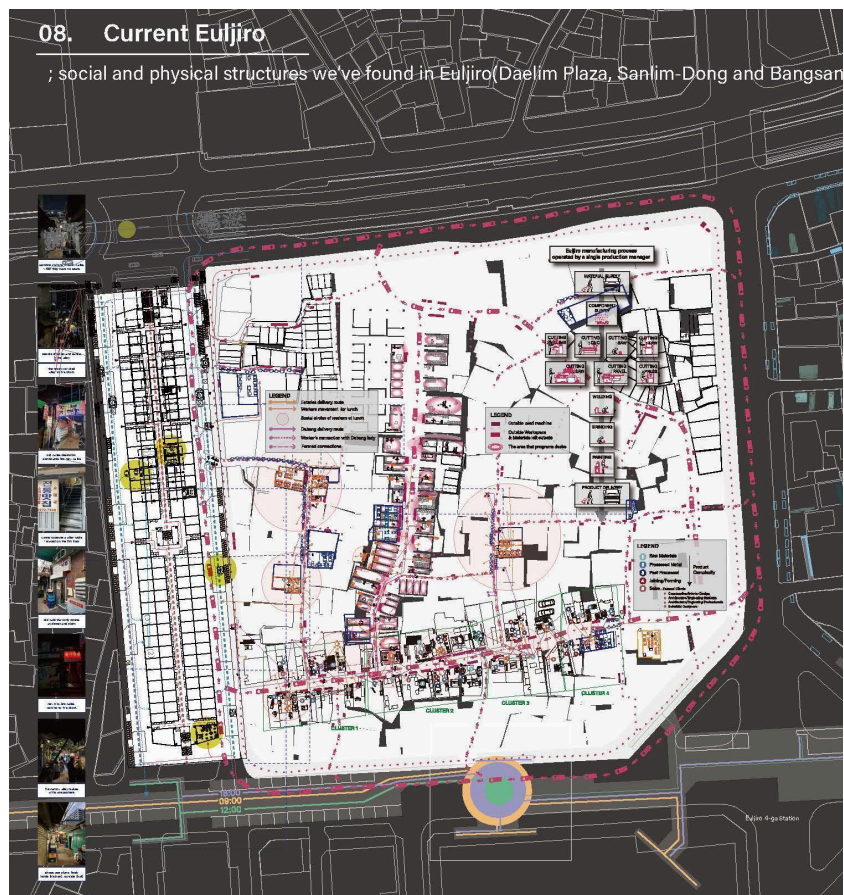
지난 2년동안 도시 스케일로 철공소(2023-2학기)와 인쇄소(2024-2학기)의 도시 구조, 건축 형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숨어 있는) 작업공간과 공유공간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을지로만의 변형 방식을 존중하는 도시 전략과 건축 공간을 제안하였다. 건축 스케일로 4,5층을 사용하는 예술가들의 공간을 해부하고,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건축 형태와 공간구조를 밝히고, 이를 고려한 자립건축(2024,2025-1)을 제안하였다. 이번 학기는 축적된 정보와 대안을 기반으로 을지로 특성들과 그곳의 주체적인 삶과 대응하고, 이를 더 고양(elevate)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다. 이 제안은 발견 된 주체적인 삶과 연관을 맺고 있는 형태, 공간, 요소를 더욱 가치있게하고 도시 밀도를 고려하는 제안이어야 한다. 이 제안은 특징적인 경계와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며, 균질한 재개발 구역과의 관계도 고려할 것이다.



Hidden beauties in Euljiro_Studio X-UNIT2.송원서.2024-1학기



2023년8월_을지로_이재원



Research on current transformation in Euljiro by engagement_Studio X-UNIT4 2023-2학기



자립건축_육일봉; 박가인's last free place_Studio X-UNIT 2 허성우 2024-1학기

사회 시스템과 상호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 (Architecture and Urbanism interacting with socia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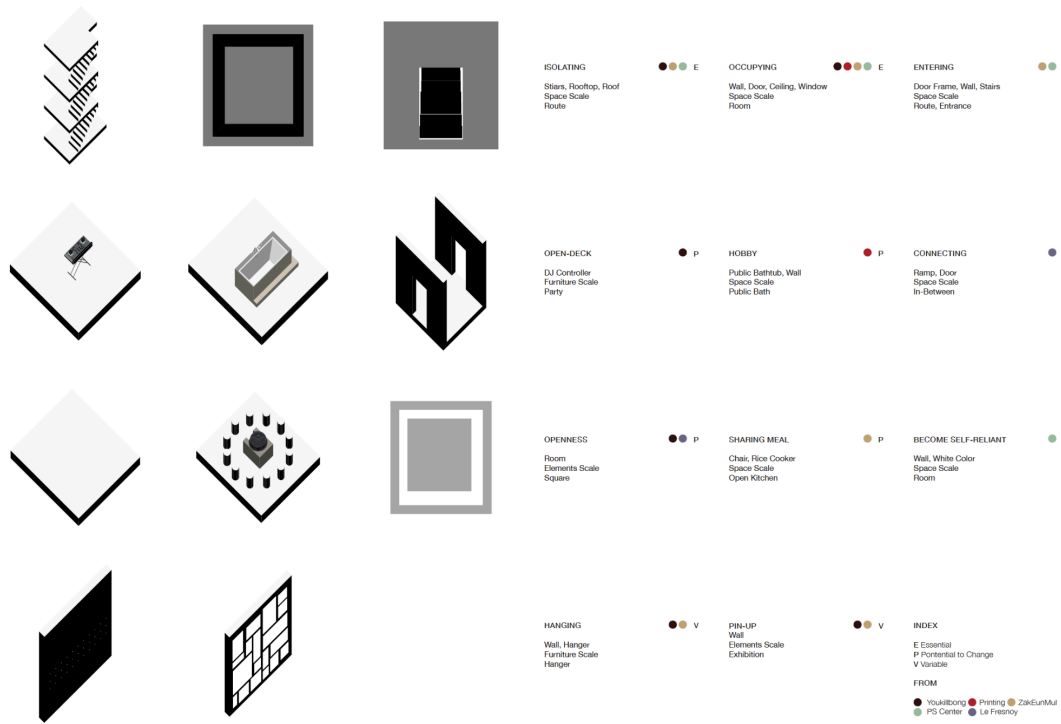
// UNIT 2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과 도시는 사회 시스템과 상호 대응하는 형태적 체계이다. 이 체계는 도시와 건축 형태, 공간 구조, 물리적 요소로 조직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및 건축형태, 공간구조는 주체적인 사람들의 리추얼과 도시를 작동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의해서 상호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기능으로 형태가 결정되는 형태 또는 공간, 프로그램과 형태가 분리되는 타이폴로지와 다른 관점이다.

그러므로, 이번 학기에 학생들은 '사회 시스템과 상호 대응 하는 도시 건축'을 설계하기 위해서 리추얼과 개개인의 삶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현재의 건축 형태, 도시형태, 공간구조, 물리적 요소를 분석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도시 건축적 언어를 설정해야 한다. 설정한 것을 기반으로 조합, 병렬 배치, 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가 설계할 수 있는 언어와 범위를 발전 시킨다.



Hidden beauties in Euljiro_Studio X-UNIT2. 송원서. 2024-1학기





-of the other_Studio X-UNIT 2 허성우 2024-1학기

연구 방법 (Metholodogy)

// UNIT 2의 주요 방법론은 참여와 직접행동이다. 참여(Engagement)는 을지로를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이해하고, 탐색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서 작지만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분석하여 그것이 함의하는 개념과, 이슈에 도달해야 한다. 인터뷰를 하면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닌, 핵심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대상과 인터뷰, 관찰, 참여와 같은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자기만의 궤도(trajecotory)를 만들어야 한다.



760-0 project_ 캠페인_도시건축정류소, 켈리장, 싸이트플래닝, Hsqu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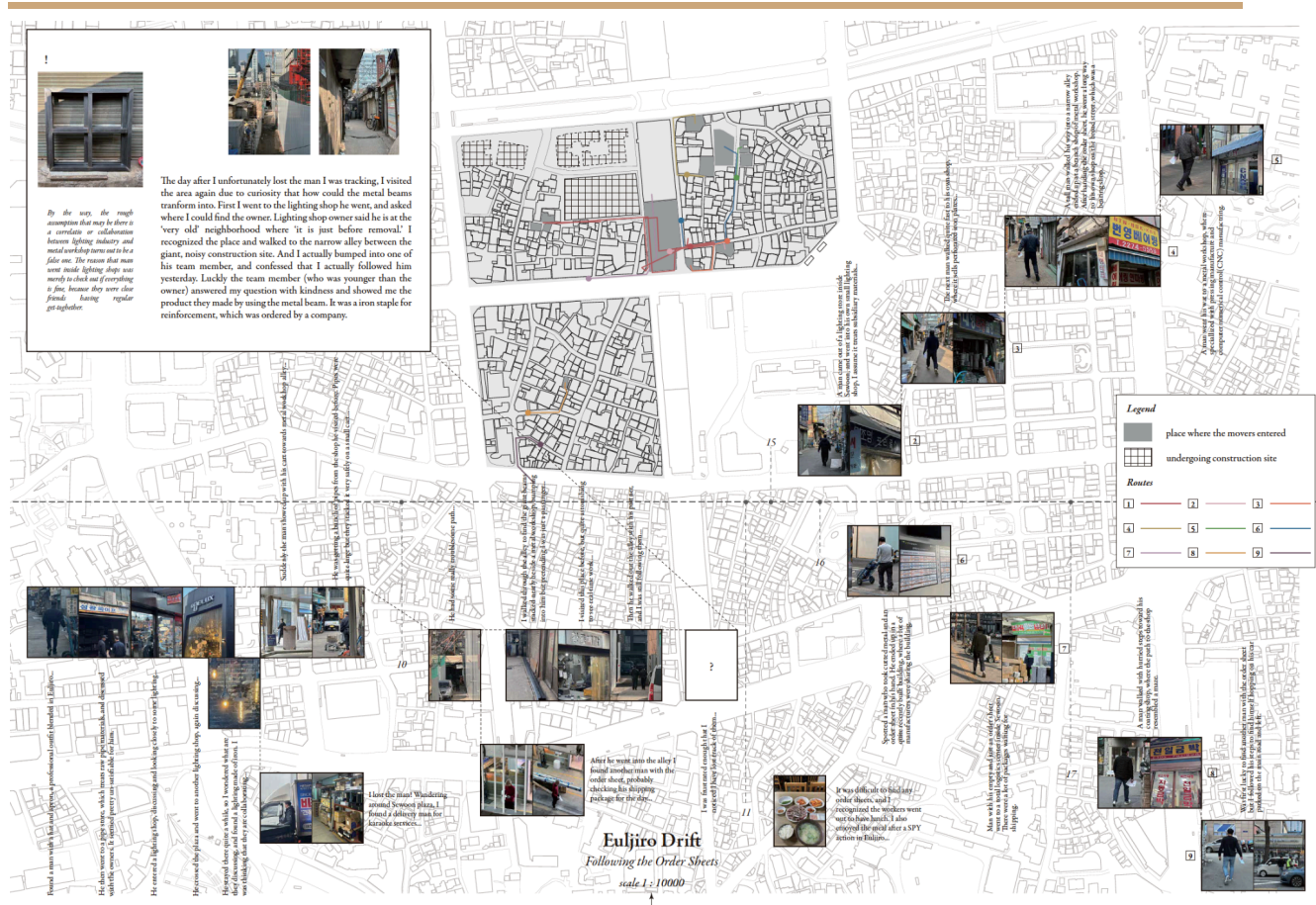
1:1_건축가:예술가 을지로 도시워크숍 part.01_포스터

참여를 통해 리서치 주제를 정하고 PART1의 결과물로 예비적 디자인 방식인 '직접행동하기(Direct Action)'를 진행한다. 이는 전술적 도시주의(tactical urbanism)로써 상황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방식이다. 이 방법의 현실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_건축가:예술가 을지로 도시워크숍'에 참여한다.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무소, drma architects(norway 기반), 작은도시이야기가 을지로의 아티스트 커뮤니티와 함께 진행하는 을지로 도시 워크숍을 통해서 을지로 예술가 지도를 그리고,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보는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한다. 워크숍은 9월중순부터 말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 과정 (Schedule)

PART 1 (Week 1 - 3) _ Defining Euljiro

PART 2 (Week 4 - 5) _ Direct Action in Euljiro



Time (Threshold)_Studio X-UNIT 2_유시영_2024-1학기

// PART 1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을지로를 발견, 진단하고, 정의 내린다. 우선 주체적인 삶과 연계한 도시, 건축 형태 및 공간 구조를 발견하고, 이어서 도시 블록 내 또는 블록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계와 영역을 찾는다. 도시, 건축 형태와 공간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과 도시 구조와 작동하는 사람들을 총체화 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건축의 위치를 학생 스스로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설계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사용한다. PART 2에서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을 정한 후, 예비적인 대안인 직접행동하기(Direct Action)를 팀작업으로 디자인하고 실행한다. 을지로와 싸이트에서 발견한 요소를 기반으로 액션을 기획하면서 분석과 제안의 중간적인 성격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1_건축가:예술가:을지로 도시워크숍'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을지로 리서치, 분석은 지난 2년간의 'unit 2 을지로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이번 학기 리서치와 작업이 더욱 깊고, 넓어질 것을 기대한다. 을지로 조사와 참여는 지역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자의 도시 표류(urban drift)를 진행한다. 비판적인 과정은 드로잉과 사진, 영상, 모형, 글을 통해서 시각화, 구체화 되어야 한다. 드로잉은 배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평면도,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단면도,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엑소노메트릭과 끌라주를 중심으로 사용한다. 사진과 영상은 드로잉이 담지 못하는 순간과

분위기, 시스템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한학기 동안 생각과 발견, 진단, 결과를 드로잉, 영상, 모형, 글을 통해서 매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방법은 아래의 워크숍과 렉처를 통해서 발전시킨다.

- 주제 강의: 스튜디오의 주제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강의를 통해 스스로의 분석, 디자인 방향을 잡는다.
- 리딩세미나: 스튜디오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리딩리스트를 같이 강독하고 분석하면서 사고의 깊이를 키운다.
- 드로잉 및 사진/영상 워크숍: 분석과 디자인 툴인 시각적 자료의 중요성과 생산하는 방식을 익힌다.
- 포트폴리오; 드로잉, 사진, 영상, 글

PART 3 (Week 6-9) _ Cooperative Drawing and Develop preliminary propo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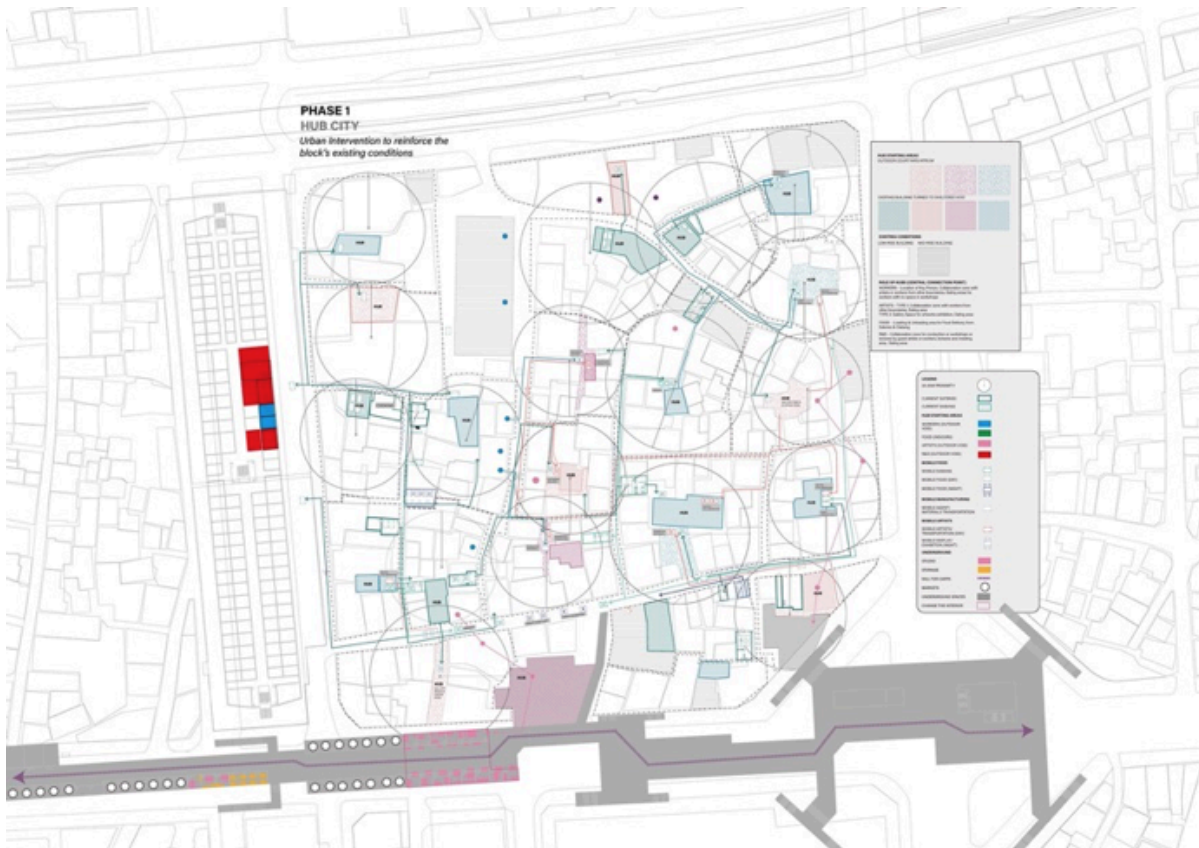


Research on current transformation in Euljiro by engagement_Studio X-UNIT4 2023-2학기

// PART 1에서 진단하고 분석한 도시, 건축형태와 공간들을 검토하고, ‘협력적 드로잉’을 통해서 개별적인 주제, 키워드,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예비적인 제안인 ‘직접 행동하기’(PART 2)를 리뷰하고, 추가 리서치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방향과 논쟁점을 드러낸다.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도시 및 건축 형태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방식과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고, 변형하면서 설정한 경계와 영역을 디자인한다.

이 과정은 디자인 워크숍(intensive design workshop)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 된다. 워크숍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주체적인 삶을 위한 도시전략 및 경계'가 무엇인지 만들어 나간다. 도시 및 건축에서 무엇을 남기고, 집중할지, 어떻게 집중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시 전략 및 공간을 만들지 탐구하며 드로잉과 함께 발전시킨다.

- 협력적 드로잉 워크숍: UNIT 2의 발견을 하나로 그리는 드로잉 워크숍
- 디자인 워크숍: 스스로의 디자인 방법을 찾아가면서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워크숍, 학생 또는 그룹별로 디자인 방법을 정해서 발전시키도록 한다.; 병렬배치(juxtaposition) 또는 오버랩(overlap)과 같은 디자인 방법론을 학생 스스로 정할 수도 있고, '조건(condition)', '프로그램(program)', '총칭적인(generic)' 것과 같은 디자인 테마를 정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Common Field within the block_Studio X-UNIT4_Rachel Ariella Saly, 전예진, 이재준_2023-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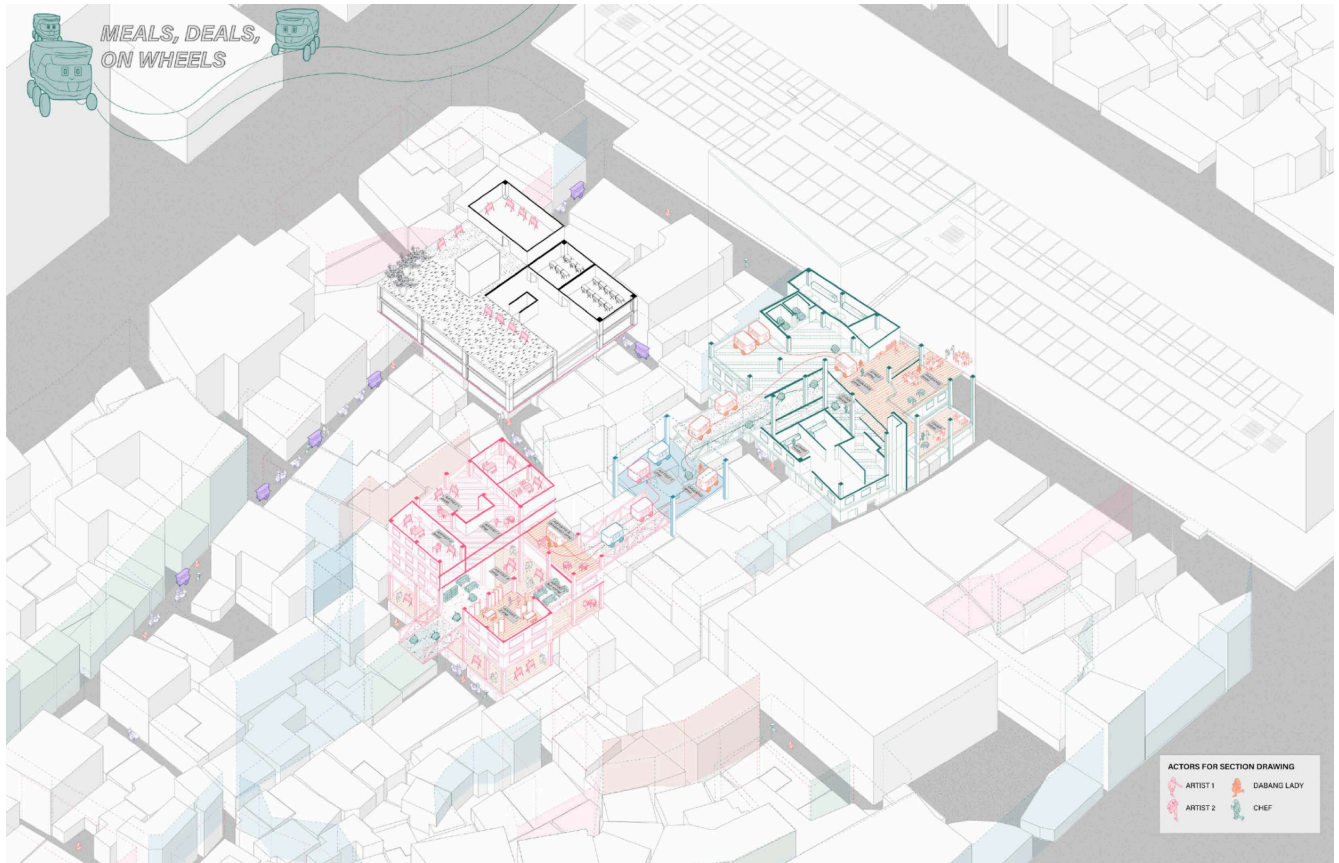


Hypocritical Ikebukuro_송원서, 김지영, Li Xianshu, 이예원, Lau Enci Jonathan_Studio X-UNIT4 2023-2학기 Tokyo Workshop



Cultural Intensity_윤요한, 이재준, 전예진, Rachel Ariella Saly_Studio X-UNIT4 2023-2학기 Tokyo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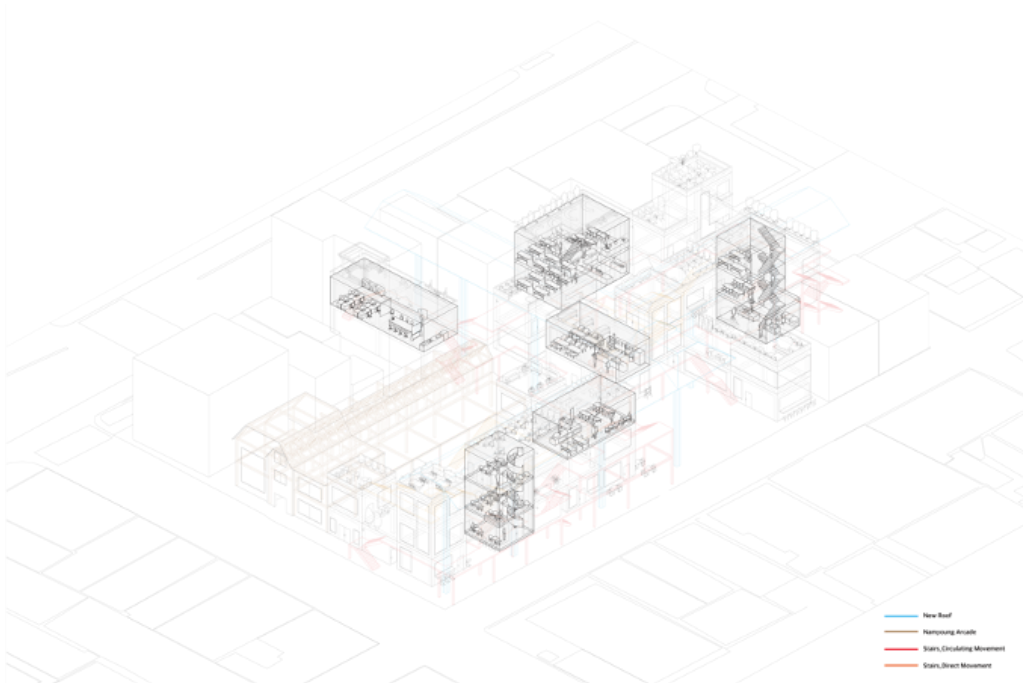
PART 4 (Week 10-16) _ Design urban perimeter and areas by Subjective urbanism+architecture



Hub city_Studio X-UNIT4. Rachel Ariella Saly. 2023-2학기

// 개념, 아이디어, 예비적 제안을 도시 전략으로 발전, 확정하고 동시에 건축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도시, 건축, 공간 스케일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 건축 제안은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안(**proposal**)으로 발전시킨다. 3학년은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고 4학년은 프레임워크와 구체적인 제안으로 모두 설계한다. 13주차부터는 프리젠테이션을 고려하면서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각적 자료가 얼마나 프로젝트 발전에 도움을 주는지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스스로 프로젝트의 강점을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15주차에는 **Cooperative Urban Strategy / Imagery** 작업을 진행한다. 학생 각각의 건축 프로젝트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인 요소들을 도시 스케일에서 모두 함께 드로잉을 하는 작업(**Urban Strategy; Cooperative Drawing**)이다. 이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의 건축 프로젝트가 도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주제적 삶으로 만들어지는 울지로의 경계와 영역을 재개발 구역과 대비하면서 드러낸다.



Individualized Market_UNIT 4 안세찬_2023년 1학기



Autonomy로 발전하는 공유공간_UNIT2. 김은호. 2024-2학기

공지 및 지원 사업 (Notice and Funding)

1. '1:1_건축가:예술가 을지로 도시워크숍'
2. 고등교육혁신원 사회혁신역량 전환,개선 교과목 선정
; 학생 사회혁신 활동 장학금 신청 가능 - 비교과 프로그램인 '워크스테이션' 학생 개별 신청 및 선정 시 지원 예정(고등교육혁신원 홈페이지 및 LearnUs 강의실 공지 예정)

결과물

// 학생들은 매주 정해진 양의 시각적인 생산물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 드로잉, 영상, 모형, 글, 리서치를 정리한 자료, 레퍼런스 분석자료 등이 시각적인 자료이다. 드로잉은 핸드드로잉, 컴퓨터드로잉, 모형,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매주 꾸준히 쌓여가는 드로잉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중간발표, 최종발표는 포트폴리오 편집을 중심으로 필요하면 영상과 PPT자료 같이 사용한다. 최종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제출물: Thesis와 연속적인 드로잉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1 big cooperative drawing for analysis and proposal, 영상, 리서치 북클릿, 모형(다양한 방식 적용), 발표에 사용한 PPT자료(영상 포함), 앞 내용의 원본파일

평가

// 포털 상의 수업계획서 참조. 설계수업은 상호간의 소통과 크리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닛 전체 수업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잘 참여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크리틱, 토론, 협업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단계별 최종 결과물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참고 문헌 (Reference)

다음 아티클과 책은 방법론(Methodology)과 표현(Presentation)에 대한 글입니다. 9월1일까지 읽고, 요약 및 생각을 정리해오면 좋겠습니다.

1. The Agency of Mapping: Speculation, Critique and Invention | James corner
2. Theory of derive | Guy Debord A user's guide to detournement | Guy Debord, Gil J Wolman
3. 플로팅 시티 [수디르 벤카테시](#) 지음 | [문화경](#) 옮김 | [어크로스](#) | 9788997379453
4. 사물들 | 조르주 페렉 지음, 김명숙 옮김 | 펍클래식코리아 | 9788901181073

THEORY+WRITING

리추얼의 종말 | 한병철 | 김영사

오늘날 혁명은 왜 불가능한가 | 한병철 | 김영사

Homo Ludens(호모루덴스) | 요한 하위징아 | 연암서가

공간의 생산 | 앙리 르페브르 | 에코리브르

스펙타클의 사회 | 기 드보르 지음, 유재홍 옮김 | 울력

New Urban Spaces: Urban Theory and the Scale Question | Neil Brenner | Oxford University Press

정크스페이스 | 미래도시 / 렘 콜하스, 프레드릭 제임슨 지음 | 임경규 옮김 | 문학과지성사 |

Identity in the Globalising World | Zygmunt Bauman

Fatima Pombo-Nomadic Interiors | Hilde Heynen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at Fifty | Robert Venturi | The Museum of Modern Art | 1633450627

Inscriptions: Architecture Before Speech / K.Michael Hays(Editor), Andrew Holder(Editor) /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Ground Control: Fear and happiness in the twenty-first-century city | Anna Minton | Penguin | 0241960908

PROJECT/CITY RESEARCH+THEORY

LONDON+10 | Carlos Villanue Brandt | Architectural Association Publications | 1902902831

Learning from Las Vegas | Robert Venturi | The MIT Press | 026272006X

The Image of the City | Kevin Lynch | The MIT Press | 0262620014 Made in Tokyo: Guide Book | Junzo Kuroda, Momoyo Kaijima | Kajima Institute Publishing | 4306044211

Cities Without Ground:A HongKong Guidebook|Adam Frampton,JonathanD.Solomon,Clara Wong|ORO

ARCHITECTURE IS PARTICIPATION | Susanne Hofmann | Jovis Berlin | B015X4CC2G

토레 다비드:수직형 무허가 거주 공동체 |알프레도 브릴렘버그, 후베르트 클룸프너 지음 김마림 옮김 | 미메시스
Cedric Price - Works 1952-2003. A Forward Minded Retrospective | Samantha Hardingham

Weak and Diffuse Modernity | Andrea Branzi

Domestic Animals | Andrea Branzi

TypicalPlan | Francesco Marullo

PRESENTATION

동굴도 읽기 | 안휘준 지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단면의 정석 | Paul Lewis , Marc Tsurumaki , David J. Lewis 지음 , 남수현 옮김 | 시공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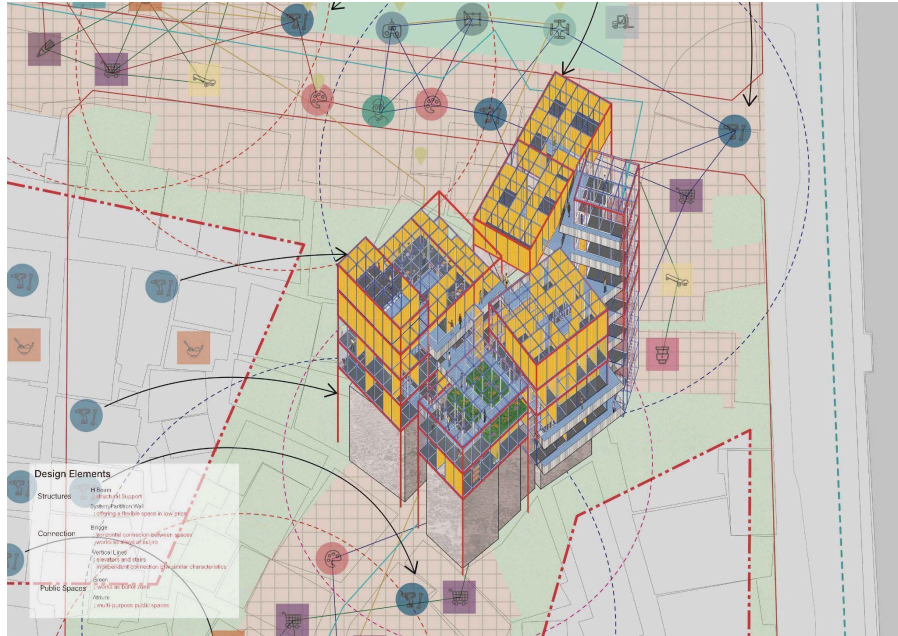
Notations:Diagrams&Sequences:Diagrams and Sequences | Bernard Tschumi | Artifice Books on Architecture

Graphic Anatomy | Atelier Bow Wow | Toto | 4887062788 Graphic Anatomy 2 | Atelier Bow-Wow | T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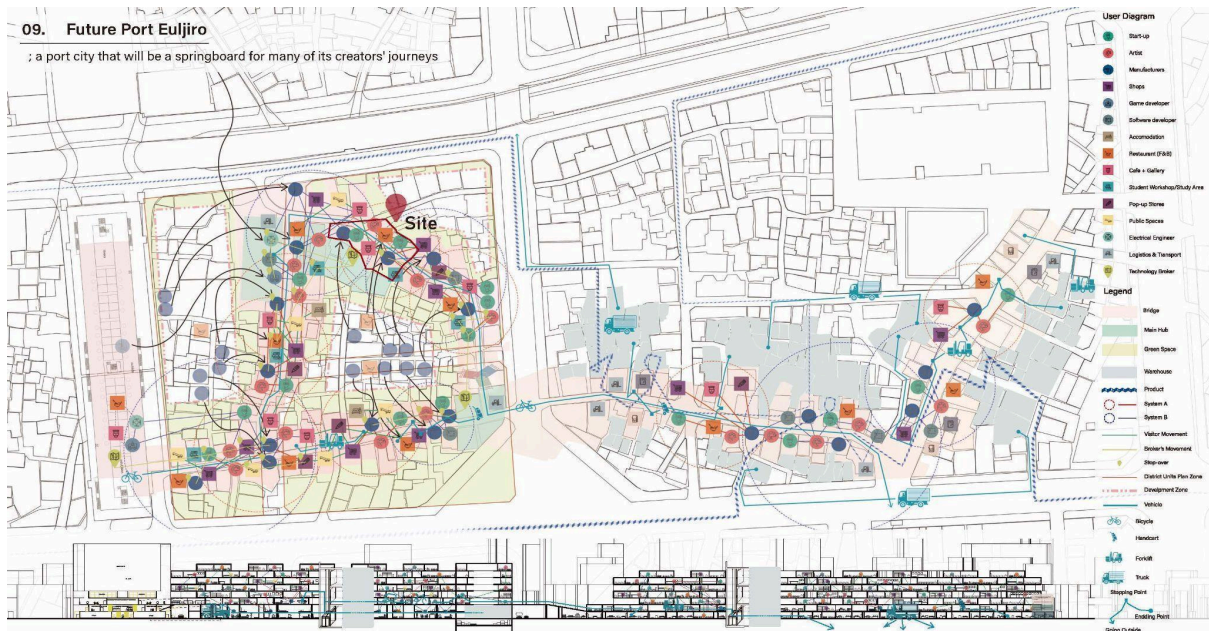
Unit 지원자들에게 알림

설계는 창의적인 작업이기도 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 일이다.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이 질문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방향을 찾고, 그리고, 만들고, 주장을 세워 가는 것이 3,4학년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의 재미를 느끼고, 유닛의 방향과 비교 분석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와 생각을 정리하고 드로잉 방법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Unit에서 질문하고 답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공감과 이번 학기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우리 유닛의 주제에 관심이 가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미리 브리프를 여러번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오면 좋겠다. 이에 더해서 우리 유닛뿐만 아니라 다른 유닛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STUDIO-X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자산일 것이다. 일상에서의 발견을 좋아하고, 사회 구조와 연계하는 건축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학생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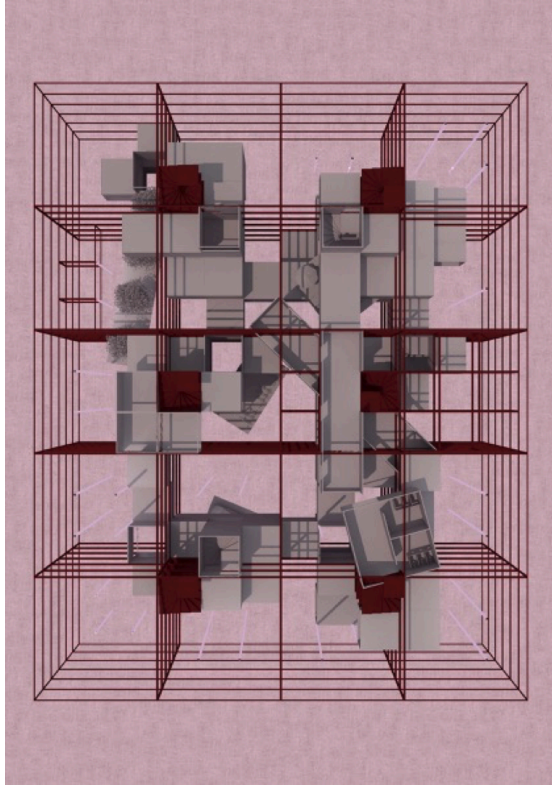
참고 프로젝트



Ensemble Architecture_Studio X-UNIT4. 이예원. 2023-2학기



FfFuture Port Euljiro_Studio X-UNIT4_송원서,이예원,김지영,Jonathan Lau, Li Xianshu_2023-2학기



Improvised Architecture_Studio X-UNIT4. 허성우. 2023-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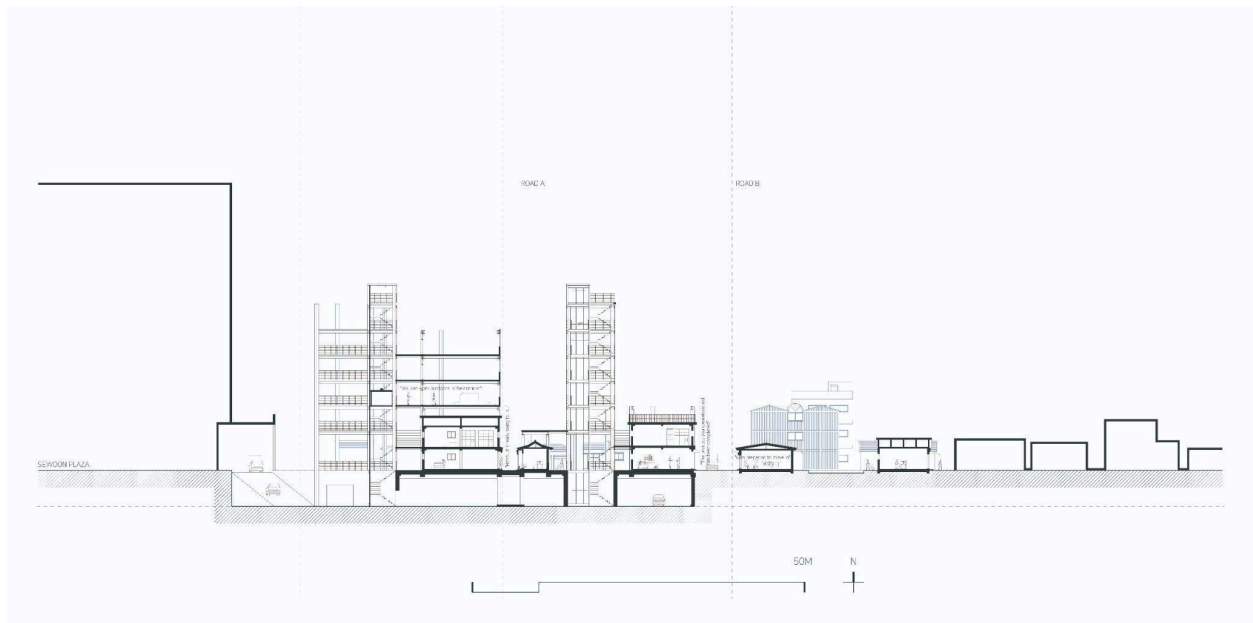
Threshold city, Garibong_도시건축정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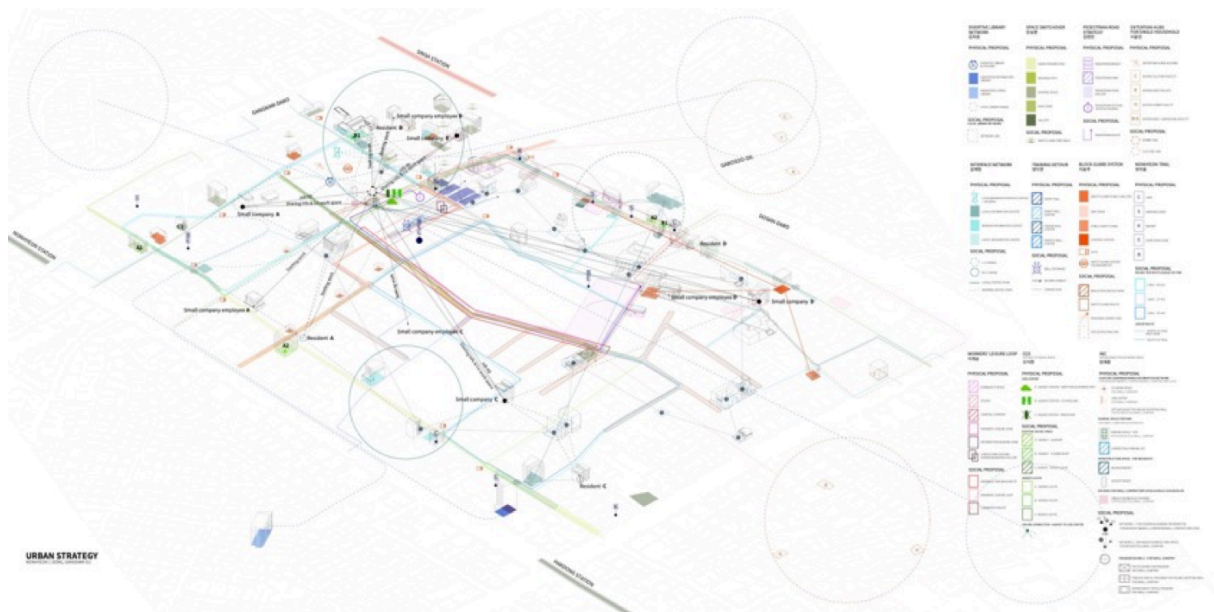


Internal Promenade_이준영_한양대학교 erica 4학년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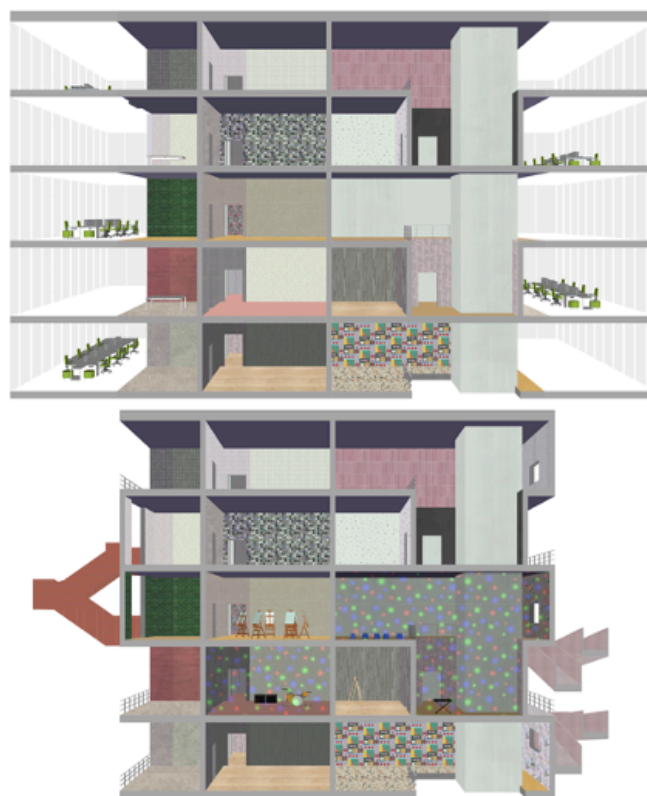


FCommune 2020 _조준형, 고은강_한양대학교 erica 4학년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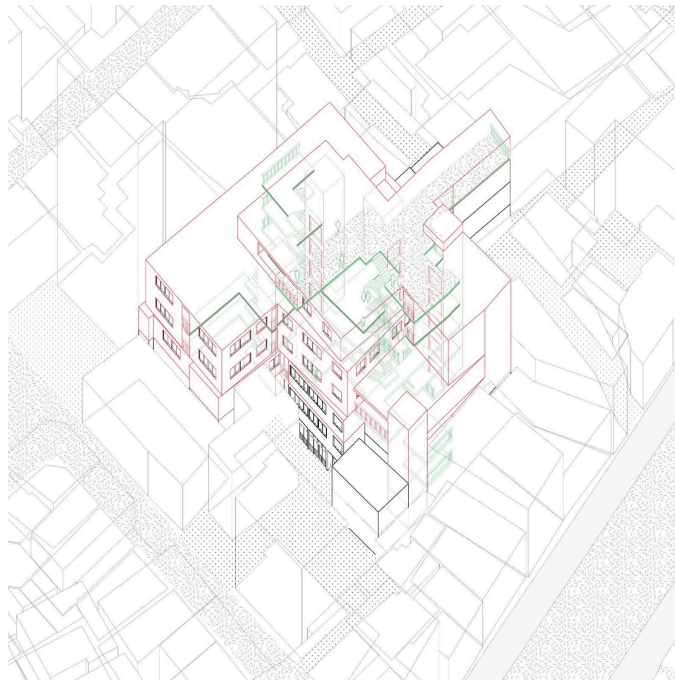




Nonhyeon living Architectural Network_Collective Drawing_단국대학교 2017 3학년1학기



-of the other_Studio X-UNIT 2 허성우 2024-1학기



Dual Street Space_Studio X-UNIT 2 황재용 2024-2학기